www.greeninet.or.kr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www.greeninet.or.kr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 i-Net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그린i-Net이 함께합니다

지난해 9월 청소년 유해정보의 심각성과 차단 소프트웨어의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하는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 홍보 책자 발간에 이어, 이번에 ' 청소년 정보이용 안전망 그린i-Net2.0'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청소년인터넷안전망 그린i-Net' 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쉽게 보급 확산하기 위한 그린i 캠페인을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결과, 지금까지 그린i-Net을 통해 무려 140만 이상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그린i-Net을 통해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옷을 갈아입은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 ' 자료집에서는 내용을 보다 알차고 다양하게 구성하여 학부모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새롭고 다양한 매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상의 음란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TV 등을 통한 음란한 표현과 폭력장면들, 막말 및 비속어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요즈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현상에 대응하는 프로그램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자료집에는 위원회가 그린i-Net2.0을 통해 제공하는 청소년 정보이용보호 프로그램들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나날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i 캠페인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학부모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진 강

"우리 아이들의 깨끗하고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그린i-Net 2.0' 이 만들어갑니다"

CONTENTS

1. 그린-Net2.0 개요
- 1-1. 그린-Net2.0 이란? ---- 04
- 1-2. 그린-Net2.0 구축배경 ---- 08
- 1-3. 그린-Net2.0 구성 ---- 12

2.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Net2.0'의 활용
- 2-1.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활용 프로그램 ---- 16
- 2-2.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 ---- 19
- 2-3.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지원 시스템 ---- 21
- 2-4. 인터넷 정보이용 시간관리 지원 서비스 ---- 24
- 2-5. 사이버침해 예방 교육홍보 프로그램 ---- 27

3. 그린-Net의 이용 확산을 위한 그린i 캠페인
- 3-1. 그린 캠페인 경과 ---- 32
- 3-2. 그린 캠페인 이모저모 ---- 36
- 3-3. 그린 캠페인 향후 계획 ---- 51

자녀지도 Tip
- 부모가 가장 궁금해 하는 5가지 ---- 54
- 자녀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지도 지침 10계명 ---- 56
- 자녀를 위한 올바른 TV 시청 방법 7가지

발행인 : 이 진 강
발행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전화 02)3219-5114
인터넷 : http://www.kocsc.or.kr
발행일 : 2010년 6월 (비매품)

디자인 : 맥미디어 (02.2263.6485)
인 쇄 : 듀바인더 (031.944.8371)

※ 본 책자의 저작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으며, 책자내용의 무단도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01 www.greeninet.or.kr

1. 그린i-Net2.0 개요

1-1. 그린i-Net2.0이란?

1-2. 그린i-Net2.0 구축배경

1-3. 그린i-Net2.0 구성

그린i-Net2.0 개요

그린i-Net2.0이란?

그린i-Net2.0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온갖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구축한 사이버상의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09년 4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시대인 오늘날에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정보 또한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못지않게 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방송프로그램에도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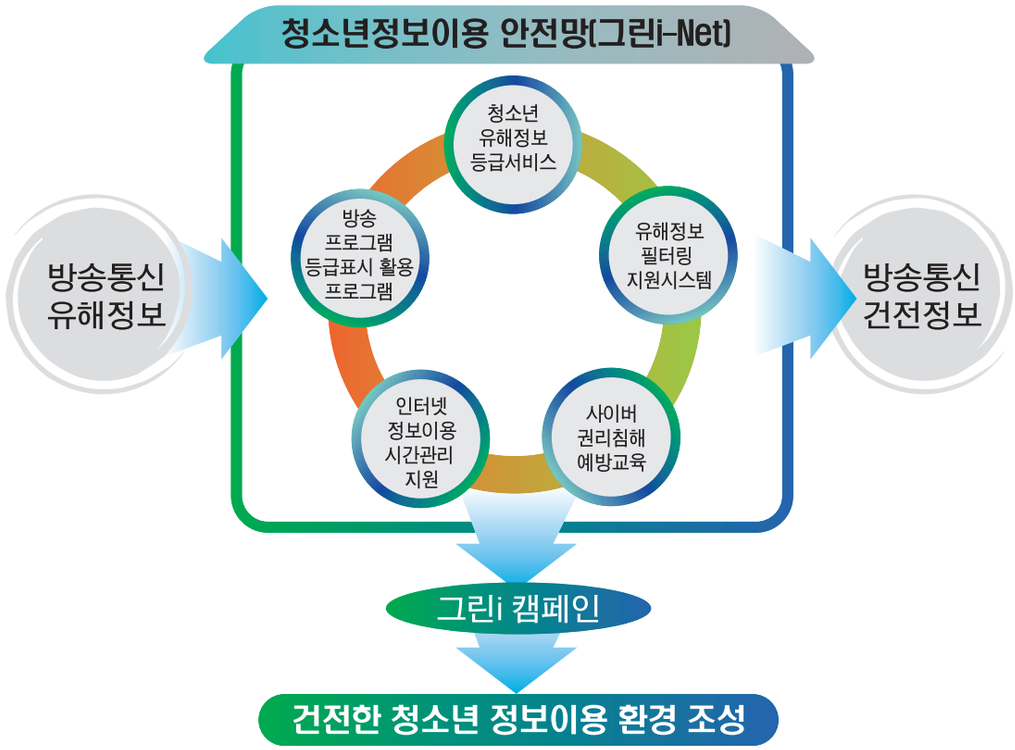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TV를 통해 유해정보를 최초로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TV 유해정보 시청 빈도와 인터넷 유해정보 접촉 빈도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고 있는 TV와 인터넷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다양한 유해정보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유해물 접촉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방송 ·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린i-Net을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에서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으로 확대 ·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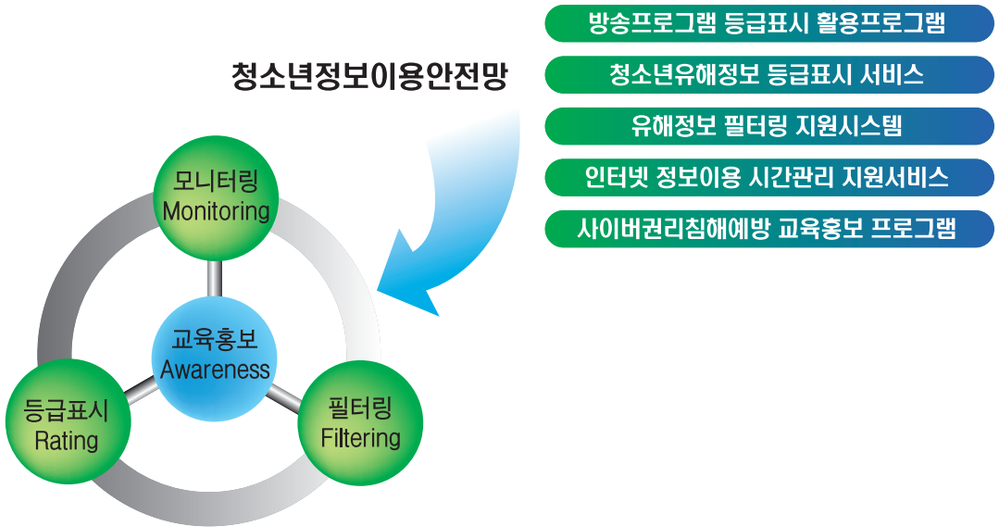
기존의 그린i-Net이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새롭게 확대 개편한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은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고 올바르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 문화적 · 기술적 인프라** 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다양한 교육 ·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린i-Net2.0 홈페이지 개편과 그린i 캠페인 확대 선포식을 시작으로, 우리 아이들이 방송통신에서의 무분별한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올바르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구성 체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욕적으로 구축하여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방송통신 분야의 유해정보를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그 유해정도를 **등급으로 표시(Rating)**하여, 정보이용자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필터링(Filtering)**할 수 있는 제도적 · 기술적 인프라 및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Awareness)**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방송프로그램 활용,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서비스, 유해정보 필터링 지원 시스템, 인터넷 정보이용 시간관리 지원,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교육 · 홍보 등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을 구축하여 그린i-Net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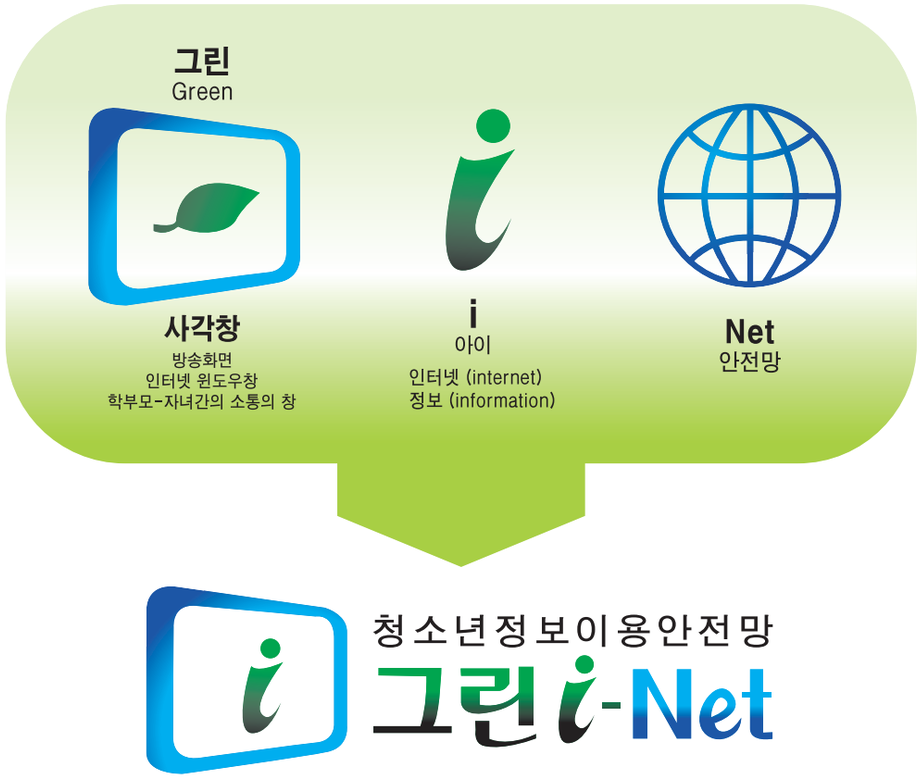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활용 프로그램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모니터링 함으로써 실질적인 체험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한 인터넷 유해정보 등급표시는 학부모나 교사가 청소년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을 감안하여 등급을 설정할 때 활용됨으로써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유해사이트 차단, 이용시간 제한 설정 등의 기능을 갖춘 다양한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청소년들은 보다 안심하고 올바르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청소년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방송통신 문화를 만들어가는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 은 기본적으로 다섯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린i-Net2.0을 구성하는 각 분야의 프로그램에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 및 봉사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린i-Net' 의 의미

'그린(Green)' 은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녹색의 이미지로,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건전한 청소년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고, '그린' 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창은 방송 화면, 인터넷 윈도우창, 학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의 장을 의미합니다. 'i' 는 아이, 인터넷, 정보(인포메이션)의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물처럼 엮인 모양의 'Net' 은 청소년 안전망을 표현한 것으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이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린i-Net' 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하여 지식과 인격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린i-Net2.0 개요

그린i-Net2.0 구축배경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우리 주변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과 24시간 방송으로 볼거리가 많아진 방송프로그램,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인터넷,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 등으로 인해 우리는 좀 더 쉽게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과 달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이나 폭력물등의 유해정보에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는 정도는 예전보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부모가 맞벌이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 자녀가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초등학생들의 방송통신 유해정보에 대한 노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아가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이나 폭력물등의 유해정보에 접촉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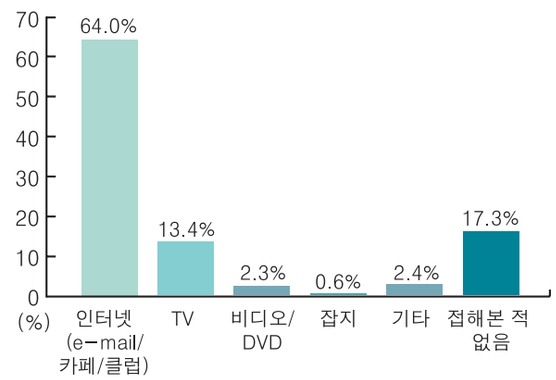
욕설과 비속어가 쏟아지고 폭력적 · 선정적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방송프로그램, 음란하고 노골적인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등 온갖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는 우리 아이들이 정보통신 환경의 역기능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좋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의 심각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9년 말 전국의 남녀 중 · 고등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들이 유해정보를 최초로 접촉한 경로는 인터넷이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TV가 13.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는 남학생이 72.1%로 여학생(55.5%)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TV의 경우는 반대로 여학생이 17.4%로 남학생(9.6%)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들이 유해정보를 최초로 접촉한 주요 경로가 인터넷과 TV라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인터넷과 TV가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고 자주 접하는 매체임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조사결과는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유해정보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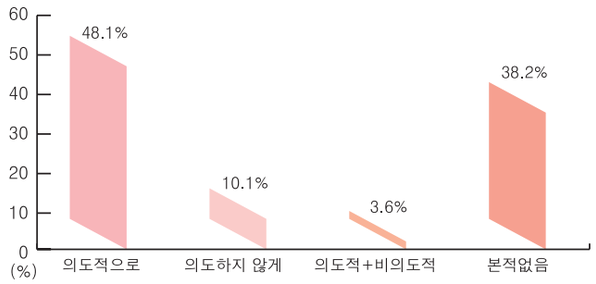
▶ 청소년 유해정보 최초 접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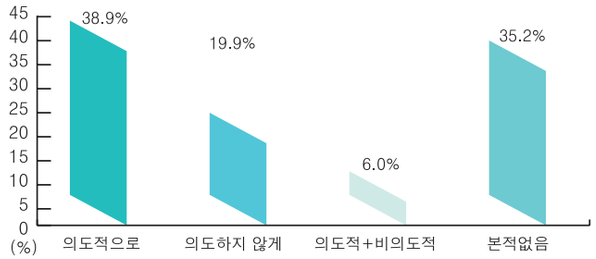
보건복지부가 전국 1만4716명의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란물을 처음 본 시기는 '중1때' (성인용 영상물 11.9%, 음란 사이트 12.7%)가 가장 많았고, '초등6학년 이하' (성인용 영상물 9.0%, 음란 사이트 9.8%)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19세미만 이용불가' 게임에서는 '초등6학년 이하'가 14.1%로 가장 높아 초등학생의 인터넷 유해정보 노출이 심각한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통계로 보는 청소년 유해정보 접촉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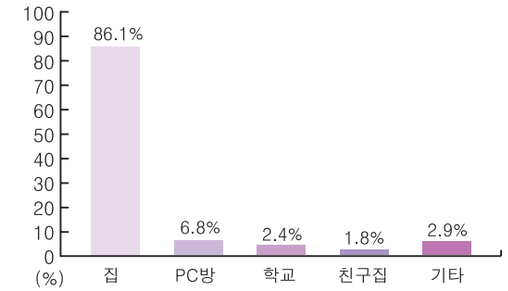
▶ TV 유해정보 접촉 경험(음란선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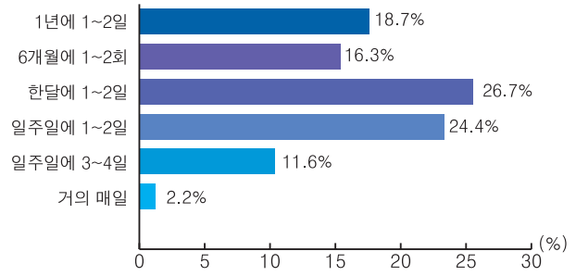
▶ 인터넷 유해정보 접촉 경험(음란선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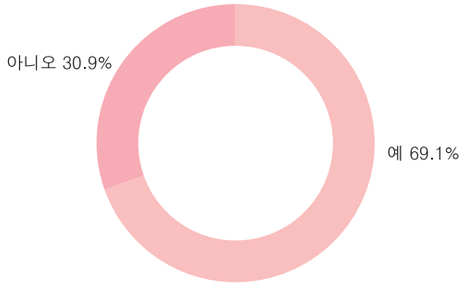
▶ 지난 1년 간 인터넷 유해정보 접촉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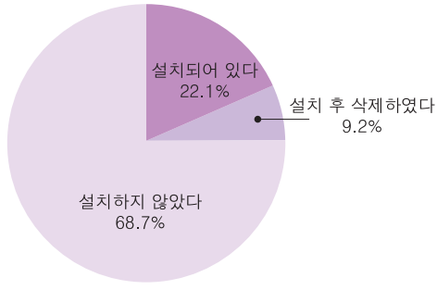
▶ 지난 1년 간 TV 유해정보 접촉 빈도



▶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인지 여부



▶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 '건전한 방송통신 문화를 조성하는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 내 아이가 음란물 사이트를 접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잔인하고 폭력적인 게임만 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음을 알게 됐을 때 부모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내 아이만은 안 그럴 거야' 라며 안심하고 있다가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 외에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은 날로 높아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VDT증후군, 거북목증후군, 비만 등의 건강 악화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비행을 일삼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TV나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유해정보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청소년들이 온갖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자유롭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방송통신 문화를 조성하는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 (www.greeninet.or.kr)**을 활용하면 됩니다.

학부모와 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는 그린i-Net2.0에서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모니터링에 참여하거나 등급기준을 활용하여 자녀들이 안심하고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린i-Net2.0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인터넷 정보 이용 시간을 관리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그린i-Net2.0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해 그린i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확대 · 추진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유해정보 노출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에게는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의 필요성과 활용도를 인식시킬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린i-Net2.0 개요

그린i-Net2.0 구성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은 크게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활용 프로그램',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이용 지원', '인터넷 정보이용 시간관리 지원 서비스',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교육'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제와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는 청소년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TV와 인터넷의 유해 콘텐츠에 유해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분류 및 표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폭력물이나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활용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방송모니터링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에게는 자녀들의 TV 시청지도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들에게는 해당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통해 스스로 시청가능 대상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는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표기한 등급표시나 공인 유해정보 등급분류 기관이 표기한 등급표시를 참고하여, 학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가 해당 청소년의 정보이용 수준에 맞게 등급을 설정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학부모나 교사는 해당 코너를 통해 유해등급 분류 기준이나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지원' 부문에서는 학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들이 유해정보를 등급별로 차단하기 위한 수단인 필터링 S/W의 기능을 비교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C용 지원 S/W 제품의 종류와 서비스 기능의 선택은 학부모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업체 간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프로그램의 품질이 검증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인터넷 정보이용 시간관리 지원 서비스'는 필터링 S/W의 인터넷 시간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시간을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이나 음란물 등은 물론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같이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경우 인터넷 이용 시간을 조절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은 교육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하고, 부모는 인터넷 사용 시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교육' 부문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칫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법적 제도와 개념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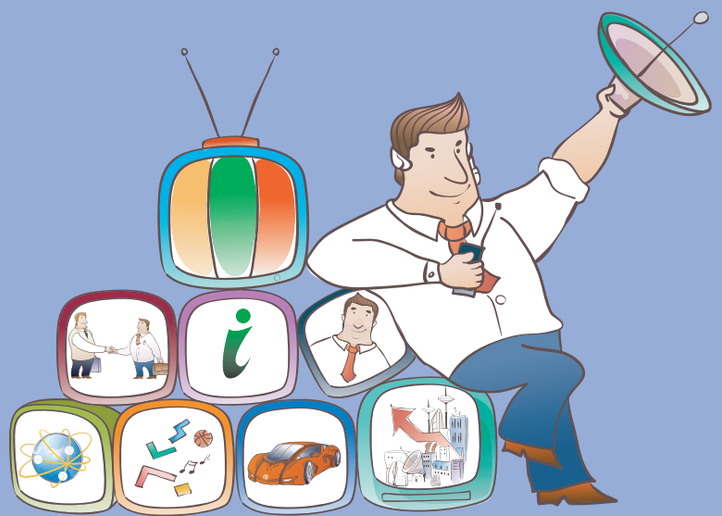
이와 함께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그린i 캠페인 패밀리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i 캠페인 패밀리자원봉사단은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린i-Net2.0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함께 그린i-Net2.0을 만들어가는 봉사단입니다.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을 구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봉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가족의 체험과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패밀리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i-Net2.0에는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자녀지도 Tip은 물론, 그린i-Net2.0 교육 및 홍보 동영상과 그린i 캠페인에 대한 생생한 현장 사진 등이 게재돼 있어 보다 쉽게 그린i-Net2.0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는 코너와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하기 코너를 마련하여 학부모와 교사, 청소년들에게 그린i-Net2.0이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의 활용

2-1.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활용 프로그램
2-2.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
2-3.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지원 시스템
2-4. 인터넷 정보이용 시간관리 지원 서비스
2-5.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교육홍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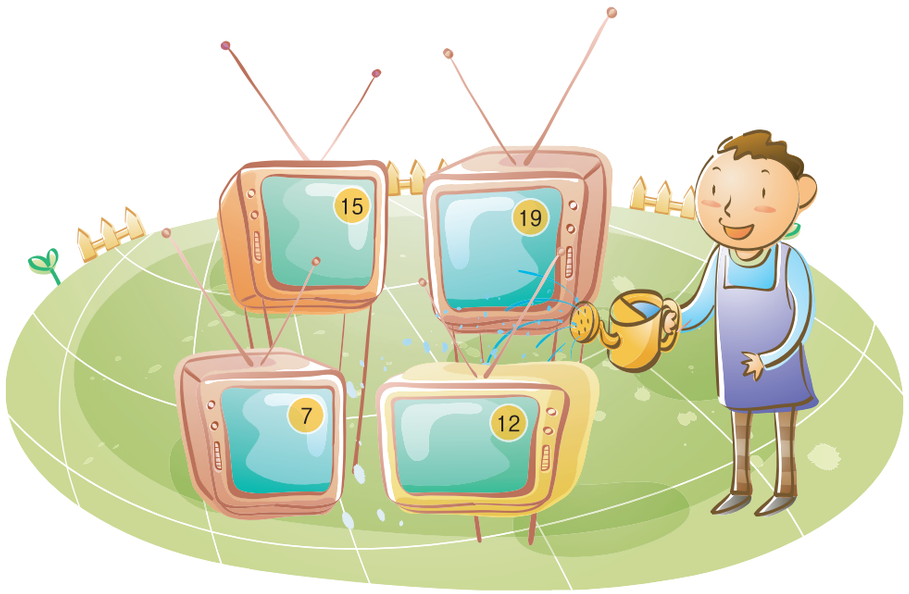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 의 활용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활용 프로그램

그린i-Net2.0은 학부모와 자녀들이 직접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모니터링' 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참여 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TV 시청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등급이 표시된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그린i-Net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제가 더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건전한 TV 시청 환경을 조성해주고, 청소년들은 체험을 통한 학습과 봉사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린i-Net이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제란,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 보호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를 기준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 등급을 분류하고, 일정한 기호를 TV 화면에 표시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지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등급은 방송사업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방송사업자는 자율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등급을 표시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 지도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방송사업자가 결정한 시청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에 등급분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는 방송법 제33조 제3항부터 제5항에 걸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에 의거,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 지도가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예고 및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의 대상 및 기준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은 다음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시청등급 표시 제외 대상 방송프로그램	보도 프로그램
	생활정보 프로그램
	시사관련 대담 · 토론 프로그램
	교육 ·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
	이중 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5단계—①모든연령시청가 ②7세이상시청가(7세미만 시청주의) ③12세이상시청가(12세미만 시청주의) ④15세이상시청가(15세미만 시청주의) ⑤19세이상시청가(19세미만 시청주의)—로 분류됩니다.

▶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방법

등급표시

-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등급 표시
- 반투명으로 표시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

-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 대각선의 1/20 이상의 크기

등급표시 지속 시간

- 본 방송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30초 이상
- 방송 중 매10분마다 30초 이상
- 중간광고 직후 본 방송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30초 이상

※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 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표시

▶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등급 분류 기준

모든연령 시청가

- 주제가 취학 전(7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은 것
- 폭력적 · 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사용이 없는 것
-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특정한 사상 · 종교 · 풍속 등과 관련해 모든 연령의 시청자에게 정신적 · 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것

7 — 7세이상 시청가

- 주제가 7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 · 육체적으로 유해하여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 폭력의 방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어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없는 것
- 어린이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않은 것

12 — 12세이상 시청가

- 주제가 12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 · 육체적으로 유해하여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 폭력이 갈등해결을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폭력묘사가 행위의 모방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
- 입맞춤 또는 옷을 입은 상태의 성적 접촉 묘사가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않은 것
- 청소년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않은 것

15 — 15세이상 시청가

- 주제가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 · 육체적으로 유해하여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 폭력묘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정의에 위배하여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않은 것
- 성적묘사가 건전한 남녀관계의 애정표현을 벗어나지 않고 신체의 부분노출, 암시적 성적 접촉 및 대화내용 등이 선정성을 띠지 않은 것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악의 없는 욕설, 은어, 속어, 유행어 등이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된 것

19 — 19세이상 시청가

- 주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여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 살생 및 유혈장면 등 강도 높은 폭력묘사가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 신체의 부분노출, 직접적 · 암시적 성적 접촉, 성행위 등 선정적인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저주, 저속한 동작 등이 사용된 것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 의 활용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

그린i-Net2.0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는 정보제공자가 객관적인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등급을 표시하거나, 공인 등급분류 기관이 해외 유해사이트와 같은 특정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가 그 등급표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아가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 선택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유해정보 필터링 S/W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 S/W의 활용에 꼭 필요한 것이 등급표시 자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기준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 5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별로 5개의 등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등급기준은 내용선별 기술표준인 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기준

범주 \ 수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4등급	성기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1. -마약사용 조장 -무기사용 조장 -도박
3등급	전신노출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	심한 비속어	
2등급	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상해	거친 비속어	
1등급	노출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	2. -음주 조장 -흡연 조장
0등급	노출없음	성행위 없음	폭력 없음	비속어 없음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등급 기준을 설정할 때 연령별 구분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연령별 구분은 실질적으로 유해정보 필터링 S/W를 이용하는 학부모나 교사가 등급설정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좀 더 쉽게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령별 등급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령별 등급권장 사항

구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전체가(초등학생가)	1등급	0등급	1등급	0등급
12세 이상(중학생가)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5세 이상(고등학생가)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8세 이상(성인가)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는 정보선택의 권한이 정보이용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검열 없는 자율적 규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보제공자는 등급표시를 통해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며, 정보이용자는 유해정보 필터링 S/W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음란물이나 폭력 등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정도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자아가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대개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나타난 행위를 아무 생각 없이 모방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특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은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정보란,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청소년위원회의 고시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형

구 분	종류	사 례
텍스트	· 유해게시물 · 유해소설	· 인터넷게시판, 성인사이트 등에 게시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소설 및 게시물 · 자살을 조장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자살 경험담 · 폭발물 제조 방법
이미지	· 유해사진, 그림, 만화, 애플릿(움직이는 그림)	· 노골적인 노출 및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사진 · 잔혹한 살해 및 폭력성을 묘사하고 있는 사진 · 근친상간 등 음란하고 비정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본만화
동영상	· 실시간 동영상물 · 파일형 동영상물	·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및 폭력성을 포함하고 있는 동영상
게 임	· 음란게임 · 폭력게임 · 사행성게임	· 퇴폐적인 내용의 일본 게임물 · 잔혹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게임물 · 실제 현금을 사용하는 사행성 온라인게임
기 타	· 음란대화 · 음란사이트 배너광고 · 음란물 판매광고	· 채팅사이트를 사용한 음란채팅 · 캠을 이용한 성인채팅 · 성인웹사이트 배너광고

청소년 유해정보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음란물을 들 수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과반수가 매일 음란물을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 음란물은 청소년 성범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며,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자율등급표시를 권장하고 있으며, 해외 유해사이트에 대한 등급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에도 유해사이트에 대한 등급DB 이용의 확산과 자율등급표시 권장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그린i-Net2.0을 통한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기반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 의 활용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지원 시스템

그린i-Net2.0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를 자율적으로 차단하는 필터링 S/W를 희망하는 가정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는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표기한 등급표시나 해외 유해정보 등급DB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여 정보이용자들이 설정한 등급에 따라 내용을 선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연령을 감안하여 유해정보 필터링 S/W를 선택, 자녀의 컴퓨터에 설치해두면 자녀들이 성인 음란물과 같은 유해 콘텐츠에 접근할 때 프로그램 기술에 의해 접근을 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을 통해 다양한 유해정보 필터링 S/W를 희망하는 가정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인터넷 주소창에서 www.greeninet.or.kr를 접속해 무료로 필터링 S/W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과 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들이 13개의 필터링 S/W의 기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한눈에 보는 13개의 유해정보 필터링 S/W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는 가정 내뿐만 아니라 학교나 도서관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나 각 기관의 책임자들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유해정보 필터링 S/W를 설치하여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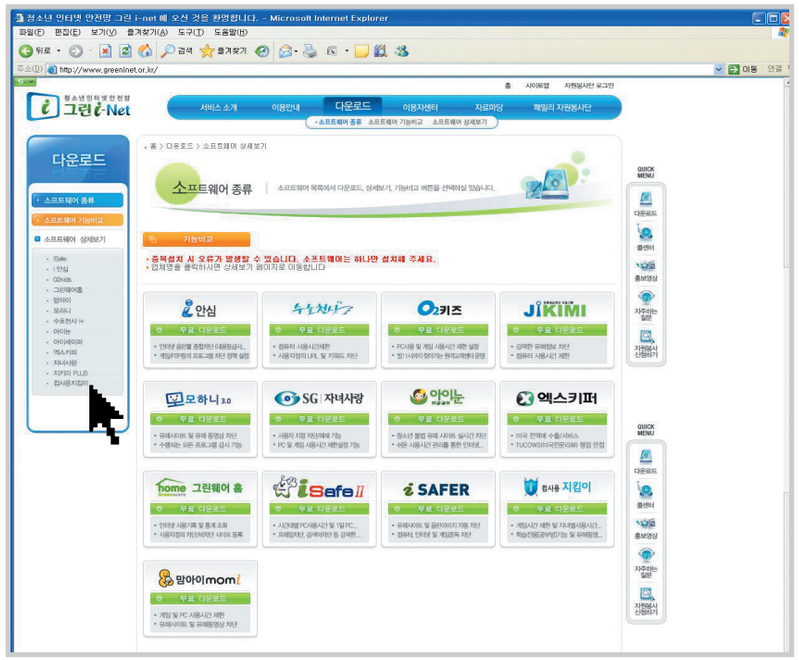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는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며, 다양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청소년 안전보호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다운로드 방법

1 다운로드 페이지 이동

▶그린i-Net 홈페이지 첫 화면에 '무료다운로드' 클릭버튼이 있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선택



▶소프트웨어 종류를 클릭하면 그린i-Net에서 제공하는 13개의 소프트웨어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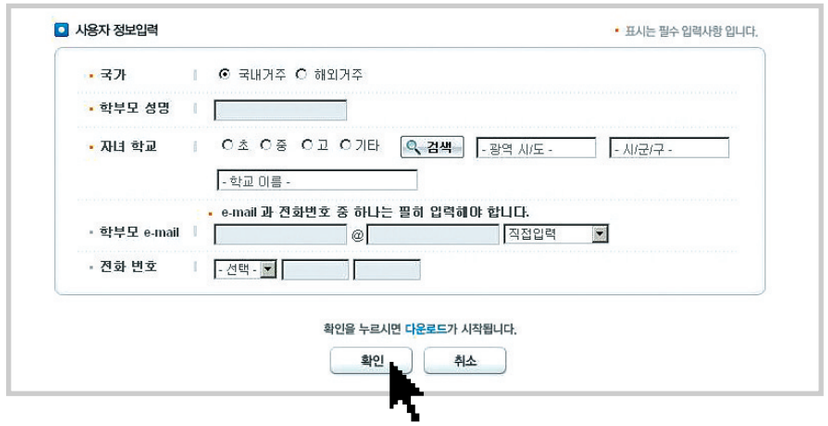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기능 비교에는 13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특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소프트웨어 선택이 빠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 상세보기' 코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개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세설명은 물론 설치방법과 사용방법, 자주하는 질문, 이용문의 등 필요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 다운로드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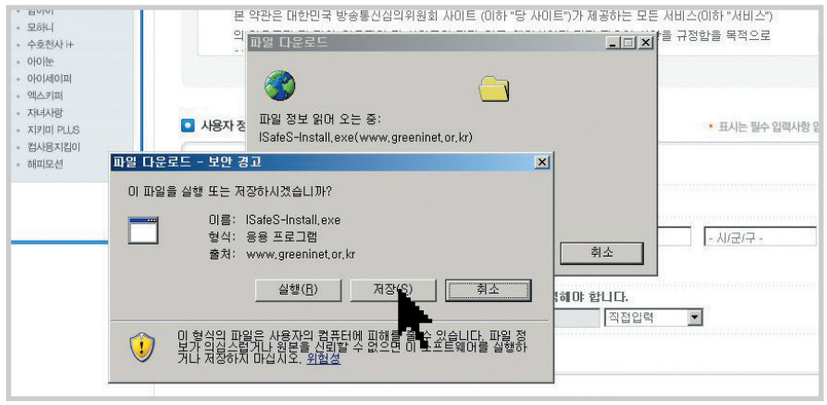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했다면 소프트웨어 상세보기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는 코너가 있어 곧바로 다운로드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정보 입력



▶다운로드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 이용자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학부모 성명과 전화번호 등 몇가지만 입력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5 다운로드 받기



▶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업체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 의 활용

인터넷 정보이용 시간관리 지원 서비스

그린i-Net2.0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필터링 S/W에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 시간을 좀 더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에 불만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가 장시간에 걸쳐 온라인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폭력성, 잔인함의 정도가 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인터넷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이 1회 평균 95.39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한 달 인터넷 평균 이용 횟수에서도 '온라인 게임' 이 11.58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청소년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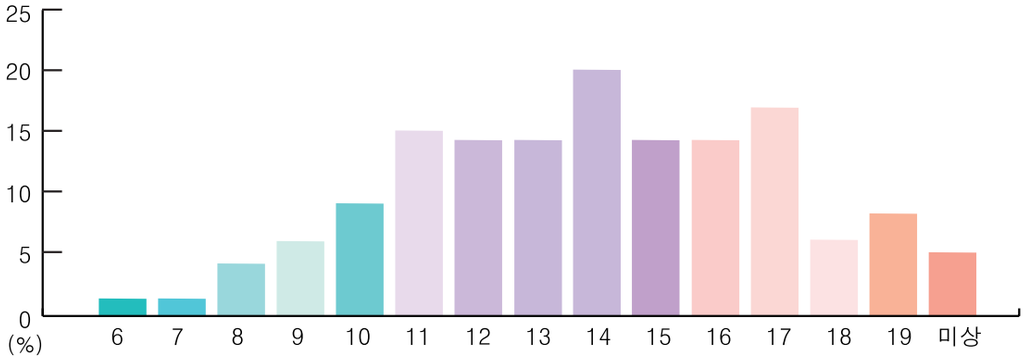
항 목	평균 횟수(회)	평균 시간(분)
숙제나 공부를 위한 지식검색	7.82	65.90
온라인 게임	**11.58**	**95.38**
메신저	11.52	70.89
인터넷 강의 청취 등의 학습활동	4.18	43.25
전자우편, 이메일 이용	3.49	12.64
미니홈피 꾸미기 및 친구홈피 방문	9.57	40.96
카페 및 커뮤니티 활동	6.39	32.83
동영상 · UCC 만들기 및 감상	4.60	26.84
인터넷 채팅 사이트 이용	1.66	9.37
음악 감상 및 MP3 파일 다운로드	10.01	54.21
연예 · 스포츠 정보 검색	7.04	222.72
뉴스나 생활정보 검색	5.66	19.97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이용	2.49	19.94
인터넷 쇼핑몰 및 공연 예약	3.38	30.93

출처: 성윤숙(2007).
「청소년 디지털소비 및 대책」 청소년정책연구원

이러한 수치는 인터넷 강의 청취 등의 학습활동이나 뉴스나 생활정보 검색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의 차이가 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게임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이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9세미만 이용불가' 게임이나 사행성 게임 등 유해 사이트에 접속했을 경우 청소년들은 호기심으로 인해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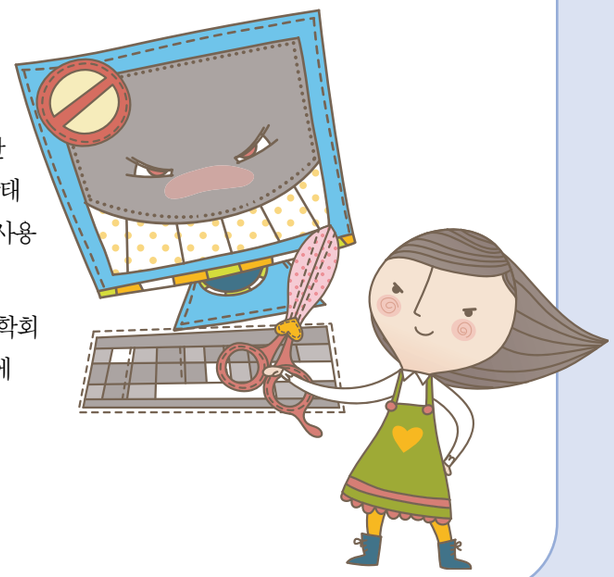
▶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연령분포



출처: 안동현(2007).
「인터넷중독 치료 · 재활 클리닉에 내원한 청소년의 특성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 상담 전문가 포럼」.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 「2007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폭력성이나 음란물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게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호기심 충족을 위해 반복적으로 불법 온라인 게임을 하게 되고,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중독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인터넷 게임 중독의 초기 상태를 보이는 청소년들이라고 해도 빠른 시간 내에 고위험사용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까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치료를 받은 청소년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1세에 급증하기 시작해 14세에 최고조를 보이고 이후 17세까지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009년 말 전국 16개 시도의 청소년과 성인 6천5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이 12.8%(중독자 수 938천 명)로 성인(6.4%, 중독자 수 975천 명)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린i-Net2.0을 통해 청소년에게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학부모에게는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린i-Net2.0의 인터넷 정보이용 시간관리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컴퓨터에 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부모가 외출하거나 혹은 늦은 밤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조절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그린i-Net2.0 홈페이지(www.greeninet.or.kr)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13개의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는 기본적으로 모두 컴퓨터 사용시간 관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임 및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기능의 경우, 학부모나 교사가 13개의 프로그램의 기능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연령과 프로그램의 기능을 고려하여 선택한 유해정보 필터링 S/W는 관리자(부모, 교사)의 허가 없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 컴퓨터에 설치된 유해정보 필터링 S/W를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인터넷 정보이용 시간에 불만을 토로한다면, 부모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 PC사용 시간설정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 의 활용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교육홍보 프로그램

그린i-Net2.0에는 청소년들의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특별 강연과 동영상 등의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이버권리침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린i-Net2.0을 통해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청소년들 또한 사이버권리침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서로를 직접 볼 수 없다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권리침해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권리침해란, 사이버 공간에서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피해를 입혀 정신적 · 물질적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권리침해는 크게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형별 사이버권리침해의 내용

사이버 명예훼손

-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거짓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 공개된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됨

사이버 모욕

- 게시판, 대화방, 이메일, 쪽지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글을 보내는 등의 행위
-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게시판에 욕설로 도배를 하는 언어폭력도 사이버모욕에 해당됨

사이버 성폭력

- 다른 사람에게 야한 내용의 문자나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해 그 사진을 공개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등의 행위도 사이버성폭력에 해당됨
- 대표적인 사이버성폭력으로 언어성폭력, 이미지성폭력, 성적사이버스토킹, 사이버청소년성매매 등이 있음

사이버 스토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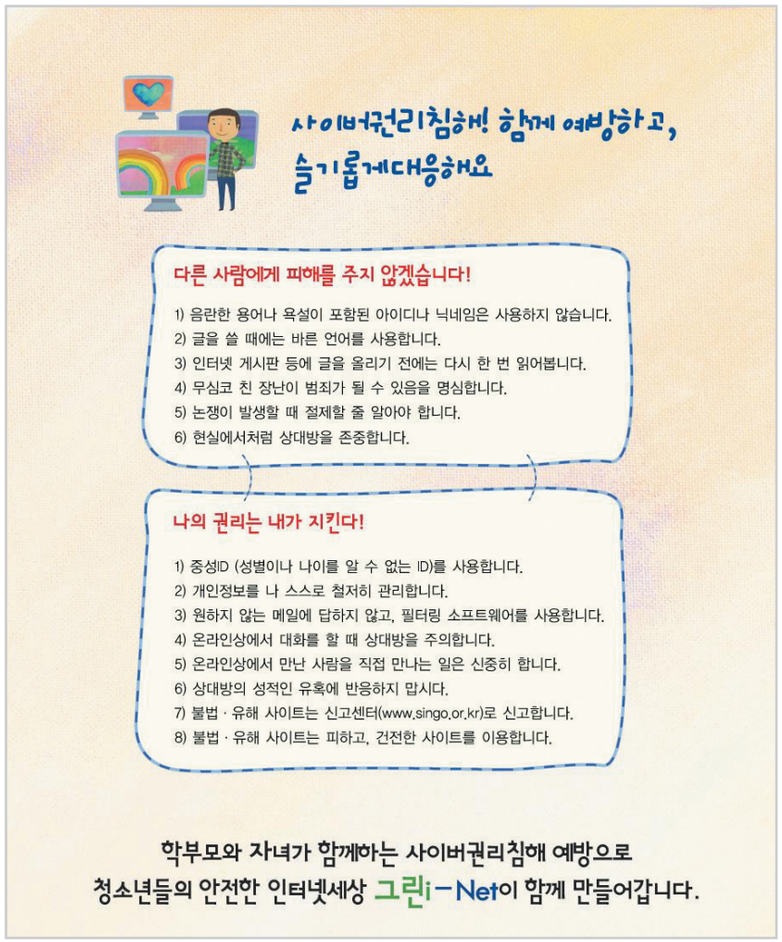
- 전화, 휴대전화, 대화방, 게시판,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사진 등을 반복하여 보내는 행위
-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이 있어야 사이버스토킹이라 볼 수 있음
- 사이버 공간 밖 집이나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로 발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신체적인 폭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인터넷 이용이 잦은 청소년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익명의 타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심한 경우 우울 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면 사이버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평소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킴으로써 건전한 정보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그린i 캠페인에 참가하는 학부모와 교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칫 이해하기 어려운 사이버권리침해의 개념과 내용을 한눈에 쉽게 이해하도록 교육 자료를 제작 · 배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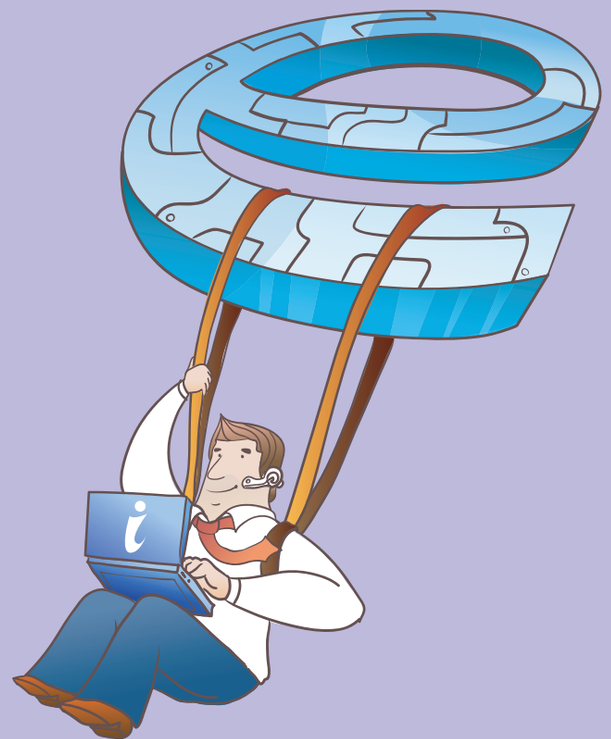
사이버 공간에서는 매우 쉽게 글을 올리거나 그 글을 복사해서 다른 공간에 옮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보게 됩니다.

넓고 빠르게 확산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권리침해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하여 모두 삭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이버 공간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등의 글을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름과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현실에서보다도 더 강한 폭력을 쉽게 휘두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쉽게 댓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나만 올리는 것도 아닌데, 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묻히게 되면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무뎌져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기 쉽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나를 포함해 누구나 모두 사이버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옮길 때 혹시 이 글이 어떤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그린i-Net 이용 확산을 위한 그린i 캠페인

3-1. 그린i 캠페인 경과

3-2. 그린i 캠페인 이모저모

3-3. 그린i 캠페인 향후 계획

그린i-Net 이용 확산을 위한 그린i 캠페인

그린i 캠페인 경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 유해정보 필터링 S/W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그린i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i 캠페인의 출발은 서울 선포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2009년 4월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그린i 캠페인 선포식'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서울시교육감, 캠페인 고문, 교사 및 학부모 등 3백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린i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홍보하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에는 강지원 변호사, 서상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 영화배우 안성기 · 김미숙 등 5명의 고문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15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문단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의 보급과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의 보급 확산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그린i 캠페인 행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i 캠페인 선포식 이후에는 2009년 4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한달 반에 걸쳐 경기, 대전, 대구, 강원, 제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그린i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전국 순회 형식으로 전개된 그린i 캠페인에는 지역별로 학부모와 교사 등 3백~4백 명이 참여했고, 전국적으로 연인원 5천여 명이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순회 그린i 캠페인에서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하기'라는 특별 강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시하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그린i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레크리에이션, 퀴즈대회, 창작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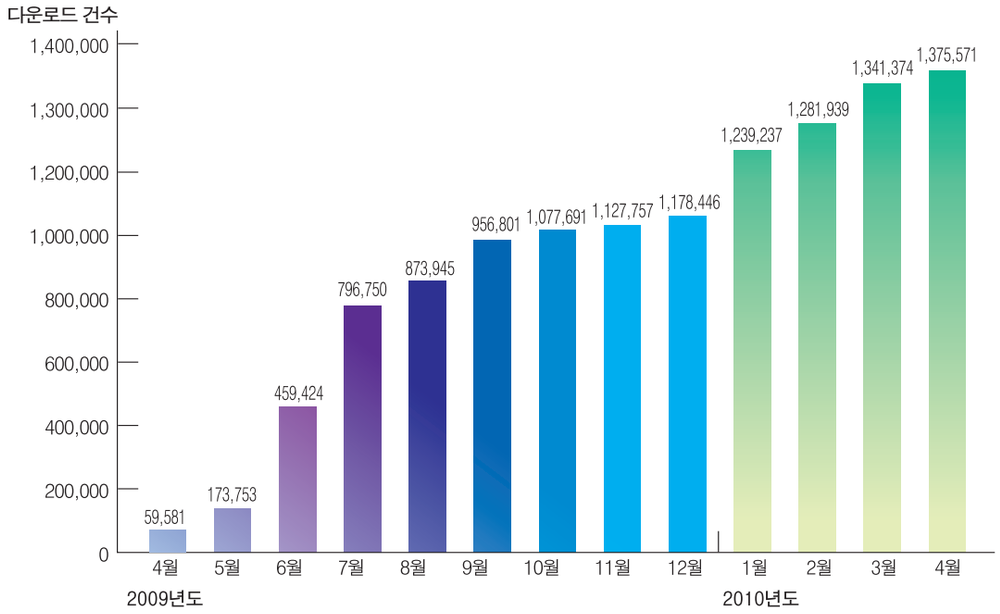
지역별 순회로 열린 그린i 캠페인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i 학부모 홍보위원' 위촉식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전국 16개 지역 시도교육청의 관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마다 1명의 학부모 홍보위원이 위촉됐고, 전국적으로는 약 6천여 명의 홍보위원이 선정됐습니다. 학부모 홍보위원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그린i 캠페인 홍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가 각 가정에 보급될 수 있도록 권유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역 순회 행사가 끝난 후, 2009년 6월 30일 방송회관에서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보급률이 높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그린i 캠페인 우수학교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문단, 기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시상식에서 최우수학교 1개교와 우수학교 10개교 등 모두 11개 학교가 수상했으며, 각 학교에는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그린i 캠페인 홍보 결과, 선포식 이후 한 달 만에 유해정보 필터링 S/W 다운로드 수는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순회 그린i 캠페인 행사가 끝난 6월 말에는 40만 건, 10월에는 100만 건, 1년이 지난 2010년 4월에는 130만 건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즐겁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의 보급 확산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소프트웨어 보급 실적



■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단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갖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단 프로그램(GiFT: Green i Family Trip)'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단이란,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인터넷 유해정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의 보급을 위해 그린i 캠페인 홍보활동과 유해정보 필터링 S/W 설치 도우미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봉사단을 말합니다.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단은 다음과 같은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봉사체험을 통해 청소년 정보이용 건전화 교육 홍보를 강화하며, 셋째, 관계자들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캠페인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단 프로그램은 총 4개의 프로그램(GiFT1, GiFT2, GiFT3, GiFT4)으로 운영되며, 각기 다른 주제의 방송통신 정보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과 학부모, 자녀들의 봉사활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GiFT 프로그램의 구성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GiFT1 프로그램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 활용 교육 자율적인 그린i 캠페인 및 봉사활동	봉사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GiFT2 프로그램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교육 특강 자율적인 그린i 캠페인 및 봉사활동	
GiFT3 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모니터링 교육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봉사활동	
GiFT4 프로그램	인터넷 시간관리 방안 교육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봉사활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정보이용자센터 교육세미나실에서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단' 첫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학부모 12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는 그린i 캠페인 및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을 좀 더 자세히 알리고 패밀리 자원봉사단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정보의 심각성과 대처 방법' 이란 주제로 진행된 김성심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의 특강은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단 첫 프로그램에 이어서, 2010년 1월과 3월에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구축을 위한 패밀리 자원봉사단 프로그램(GiFT2)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이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학부모와 청소년 자원봉사단들은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특강과 봉사활동 방법 알기 등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단 신청은 그린i-Net 홈페이지 (www.greeninet.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후 참여한 학생들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기반을 조성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린i 캠페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꾸준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린i-Net 보급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그린i 캠페인 이모저모

■ 그린i 캠페인 선포식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한 '그린i 캠페인 선포식' 이 서울문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 선포식은 그린i 캠페인은 그린i-Net을 통해 성인용 동영상이나 사행성 게임 등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희망하는 가정에 널리 보급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을 위한 그린i 캠페인 선포식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정보 DB 구축, S/W 보급 ·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민간업체 지원, 홍보 캠페인 계획 등을 담당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예산 지원, 학부모 · 교사 대상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업체는 S/W 개발 및 기능 업데이트 역할분담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린i 캠페인을 통해 그린i-Net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의 다양하고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국 13개 시도 순회 캠페인

▲ 전국 지역순회 캠페인을 통하여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그린i-Net을 소개하고 있다.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 형식으로 전개된 '그린i 캠페인' 에는
지역별로 학부모와 교사 등 3백~4백 명이 참여했고,
전국적으로 연인원 5천여 명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 무료 보급 사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시 · 도 교육청과 함께 2009년 4월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그린i 캠페인' 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의 학부모와 교사 등 총 5천여명이 참여한 이 캠페인에서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정보이용 지도 방법에 관한 특별강연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를 무료로 보급하는 그린i-Net 홈페이지(www.greeninet.or.kr)의 활용방법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캠페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 · 도 교육청별 학부모 홍보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 그린i 캠페인 학부모 홍보위원 위촉

▲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전라남도 내 초 · 중 학부모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그린i 학부모 홍보위원' 에는 전국적으로 약 6천여 명의 학부모가 선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유해정보 필터링 S/W를 설치하여 유해정보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린i 학부모 홍보위원' 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린i 학부모 홍보위원' 은 전국 16개 지역 시도 교육청별 관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마다 1명이 위촉되었고, 전국적으로는 약 6천여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위촉된 '그린i 학부모 홍보위원' 들에게는 각 학교 학부모 모임등을 통해 그린i 캠페인의 홍보는 물론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가 각 가정에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 패밀리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특강을 듣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청소년의 사이버 언어폭력 및 악성댓글로 인한 권리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단 프로그램 설명회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활용과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와 자녀들은 직접 그린i-Net을 통해 유해정보 차단 S/W를 설치해보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등의 교육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패밀리 자원봉사단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자칫 딱딱하고 지루해질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대회가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소년 유해정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보이용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패밀리 자원봉사단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패밀리 자원봉사단의 자격을 부여받아, 그린i 캠페인과 청소년 정보이용 건전화 환경 구축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유해정보 필터링 S/W 설치 도우미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그린i-Net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봉사활동을 통해 유해정보 필터링 S/W를 널리 보급하고 있어 청소년의 유해정보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그린i-Net과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홍보자료집 발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린i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그린i-Net이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자료집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과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활용」을 발간했습니다.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에는 그린i-Net의 주요 기능인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사용시간 제한 설정, 프로그램 및 동영상 차단 기능과 그린i-Net 이용 방법 등이 쉽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호주 등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보급에 대한 해외 각국의 추진 내용과 더불어,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지도 Tip'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활용」에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소개와 활용 방법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 등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실질적인 정보이용자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가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린i-Net과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홍보자료집은 그린i-Net 홈페이지(www.greeninet.or.kr)에서 볼 수 있으며, 그린i 캠페인 학부모 홍보위원과 학교 및 관련 기관에 배포되었습니다.

■ 학부모 대상 그린i-Net 교육 · 홍보 프로그램 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 4월 12일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10년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인터넷이용안전망 그린i-Net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위원회는 9백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린i-Net의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교육적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린i-Net 홍보자료집 배포와 더불어 '유해정보 필터링 S/W',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서비스', '자녀들의 인터넷 정보이용 시간관리 서비스' 등 그린i-Net 활용 방법 등 자녀 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그린i-Net의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10년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워크숍'에서 9백여 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린i-Net의 활용 방법 및 자녀지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였다.

■ 그린-i 캠페인 언론 보도 및 홍보 자료

신문 · 인터넷 뉴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 무료 보급"

〈경향신문〉 2009. 4.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에 관심이 많은 가정과 학교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사업 내용의 '그린i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방통심의위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국내외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사용시간 제한 설정, 필터링 등급 선택, 차단 소프트웨어 보호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유해정보를 접촉하거나 열람했을 때 휴대폰 문자로 통지를 해주거나 관련 기록 등을 이메일로 전해주는 부가 기능도 있다.

일반 가정은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홈페이지 그린i-Net (www.greeninet.or.kr)을 통해 자율적으로 다운받아 쓸 수 있다. 저소득층 5만 가구 가운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KT 등 인터넷 정보제공자들을 통해 원천적으로 유해정보가 차단되도록 했다.

"청소년 35%, 집 인터넷으로 음란물 봐"

〈연합뉴스〉 2009. 4. 15.

방통심의위 '방통 정보이용 건전화 실태조사'에서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이 무료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5%에 달하는 등 정보통신윤리의식 정립과 유해정보 차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그린i 캠페인"

〈중앙일보〉 2009. 4.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를 보급하는 '그린i 캠페인'을 벌인다. 차단 S/W는 '그린i-Net'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부모와 아동이 함께 게임중독 문제 풀어야"

〈보안뉴스〉 2009. 5.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린-i 캠페인' 등을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과다한 게임사용을 막을 수 있는 S/W 보급 등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유해 환경, 차단 프로그램으로 고민 해결"

〈프라임경제〉 2010. 4. 30.

게임 중독 등 인터넷 관련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련 업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청소년안전망 '그린i-Net'을 통해 차단 S/W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이들 차단 프로그램은 음란물 · 유해 사이트 차단 등의 기본 기능과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리포트 발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린i-Net 사업 강화-방통심의위, 봉사단 모집 · 홍보자료집 발간"

〈디지털타임즈〉 2009. 10.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를 보급하는 청소년인터넷안전망 '그린i-Net'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한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단'을 모집하고, 청소년 유해정보의 심각성과 차단 S/W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그린i-Net 홍보자료집을 발간했다.

"디지털 맘'이 되어 자녀와 소통하라 – 게임 · 인터넷에 빠진 아이, 불안하다면…"

〈문화일보〉 2010. 03. 15.

자녀의 올바른 PC 이용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가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그린i-Net에 접속하면 총 14종의 해당 SW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유해정보 차단 S/W, 한 달만에 10만 무료 이용"

〈아이뉴스24〉 2009. 5.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를 무료로 배포하는 '그린i 캠페인'이 한 달 만에 10만여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자녀 지키세요"

〈중앙일보〉 2009. 5. 26.

'그린i-Net'의 부모가 자녀의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S/W는 ▶ 유해사이트 · 프로그램의 차단 ▶ 청소년의 사용시간 제한 ▶ 접근한 사이트의 기록 제공 ▶컴퓨터 화면 저장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촉하면 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 그린-i 캠페인 언론 보도 및 홍보 자료

TV 뉴스

"유해정보 차단과 이용시간 조절로 인터넷 중독 예방"

KBS 서울 2010. 1. 12.

방학을 맞아 집에 있는 자녀들이 게임과 TV에 빠져드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들의 TV 시청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초과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녀들이 보고 있는 TV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원격으로 TV를 끌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는 유해정보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차단 소프트웨어도 인기입니다. 차단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유해사이트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컴퓨터 사용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기도 합니다.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는 그린i-Net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물 자동차단 프로그램 무료 보급"

SBS 서울 2009. 4.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인터넷에서 청소년 유해물을 차단해주는 S/W를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유해물 차단 S/W를 사용하면 청소년 유해사이트와 동영상 차단, 컴퓨터 사용시간 제한 등이 가능합니다.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그린i 캠페인 개최"

강남방송(GS) 2009. 4. 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그린i 캠페인은 그린i-Net을 알리고 각 가정에 차단 S/W를 보급하려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연령을 고려, 그린i-Net 홈페이지에서 S/W를 선택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

"유해정보 차단 나섰다"

울산방송(UBC) 2009. 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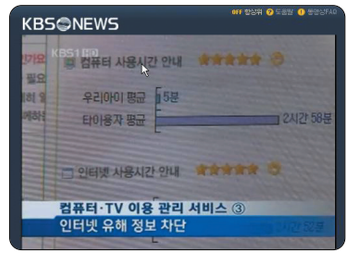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접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울산시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그린i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청소년 만4천여명에게 질문한 결과, 35.9%가 음란사이트를, 37%는 온라인 사행성 게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결과에서는 청소년들의 95.8%가 집에서 인터넷 유해정보를 접촉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보급하는 '그린i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프트웨어에는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사용시간 제한, 접근한 웹사이트 기록 제공 등의 기능이 있어 유해정보 접근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과 인터넷 예절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이지고 있습니다.

"STOP! 유해정보!"



KBS 부산 2009. 4. 28.

청소년들이 인터넷 유해정보에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가정에 제공됩니다. 그린i-Net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S/W에는 유해사이트 차단, 컴퓨터 사용시간을 제한, 유해정보 접촉 여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KBS 대전 2009. 5. 14.

청소년인터넷안전망 마련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린i-Net은 다양한 유해정보 차단 S/W를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기능에 따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인터넷 사용 환경, 부모의 작은 관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그린-i 캠페인 언론 보도 및 홍보 자료

광고 · 홍보 동영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보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그린i-Net을 알리고자 다양한 광고물과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린i-Net의 광고는 TV를 통해 방송되었으며, 그린i 캠페인 홍보 동영상을 비롯해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홍보 및 활용에 대한 동영상은 그린i-Net 홈페이지(www.greeninet.or.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TV광고

▶ 교육 · 홍보 동영상

▶ 교육 · 홍보 애니메이션 영상물

■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단 활동 후기

"고2가 되는 아들의 인터넷 사용은 내게 늘 걱정의 대상이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이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 홈페이지에서 '그린i 캠페인'을 알게 되어 아들과 함께 GiFT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했다. 캠페인을 통해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유해정보 필터링 S/W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유해정보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로는 마음도 든든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권유하게 되었다."

단국대부속고 홍정후 학생 어머니

● "게임을 좋아하는 나는 항상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 사용시간 제한 기능이 있는 '그린i-Net' 이 스스로 게임시간을 자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강서고 기지웅 학생

●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니 청소년 유해정보가 상당히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에게도 내가 배운 것들을 알려주고 프로그램 설치도 도와줬어요."

서울교대부설초 김효정 학생

● "GiFT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니 사이버 권리침해에 대한 피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캠페인이 활성화돼서 악성 댓글이 깨끗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대청중 윤희성 학생

● "초등학생 딸아이가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집에도 '그린i-Net' 을 설치하자고 해 놀랍고 대견스러웠어요. 사이버 권리침해 교육은 법적인 사실을 잘 풀어서 설명해준 것이 무척 좋았습니다."

오현초 이혜림 학생 어머니

●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나눠주는 홍보물이 한 장 한 장 퍼진다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자원봉사단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대일외고 정의형 학생

●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차단 S/W를 설치하고 며칠이 지난 후부터 내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게임을 하던 시간이 줄어들고 대신 책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친구들에게 '그린i-Net' 을 적극 권유하였는데 나처럼 변해가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기쁘다."

인헌중 성지현 학생

■ 협력 기관의 홍보 활동

▶ 교육과학기술부

"유해정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면 그린i-Net(www.greeninet.or.kr)을 클릭하세요"

〈한국경제신문〉 2009. 4. 10.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과학기술부는 성인용 동영상이나 사행성 게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보급하는 '그린i 캠페인' 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린i-Net(www.greeni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음란사이트 차단, 사용시간 제한 설정, 유해정보 접촉 알림, 접근한 웹사이트 기록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업체를 선정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업체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홈페이지에 올리면 사용자(학부모, 학생)의 이용 건수에 따라 해당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린i 캠페인 실시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널리 보급하자는 취지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그린i 캠페인 선포식' 을 개최했다.

박정희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생활지도팀장은 "학생들의 유해매체 이용이 3년 연속 25%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이 각종 모방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고 지적하며, "그린i-Net의 소프트웨어 보급이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수시 지도를 가능하게 해줄 것" 이라고 전망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STOP! 유해정보!"

〈부산 KBS 뉴스9〉 2009. 4. 28.

청소년들이 인터넷 유해정보에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각 가정에 제공됩니다. 범람하는 유해정보 속에 이제는 학교와 가정이 함께 청소년 인터넷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오순임 장학관은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률이 지난 3년간 25%, 사행성 게임이 9%, 성인용 게임이 5% 이상 증가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그린i-Net을 통해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게 되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에서의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아동 ·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 많이 활용하세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아동 ·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음란성 유해정보 사이트 등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를 통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아동 ·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린i-Net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아동 ·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을 각 가정에 알리기 위해 부산광역시내 모든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출처: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보도자료 2010. 5. 17.

‘그린i-Net’ 안내 가정통신문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동으로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린i-Ne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이 집에서 유해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72.1%로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집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 습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린i-Net’ 이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 소개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
www.greeninet.or.kr

- 그린 : 건전한 이미지, 아동청소년 이미지 표현
- i : 인터넷, 인포메이션, 아이의 중의적 의미
- 그린i :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보급을 통한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환경문화 조성 이미지 표현

‘그린i-Net'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상의 아동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녀들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 (www.greeninet.or.kr)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비교 검토하신 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린i-Net 이용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그린i 캠페인 향후 계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그린i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 덕분에 그린i-Net을 통한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다운로드 수는 2009년도 그린i-Net 선포식 이후 1년만에 13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유해정보 필터링 S/W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도 필터링 S/W를 설치하지 않은 가정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는 그린i-Net을 통해 S/W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이용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 시청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좀 더 많은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의 홍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그린i 캠페인이 주로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인터넷안전망 그린i-Net’ 보급확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 문화적 · 기술적 인프라로서의 그린i-Net 보급확산을 위한 캠페인으로 확대 ·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린i 캠페인은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 방향성을 띄고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는 방송과 인터넷상의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둘째, 학부모들에게는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의 필요성을 제고시킵니다. 셋째, 국민들에게는 건전한 방송통신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공익적인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인터넷안전망 구축을 위한 그린i 캠페인을 방송과 통신에서의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보급 확산을 위한 캠페인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i 캠페인 확대 선포식'을 시작으로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의 보급 확산을 위한 그린i 캠페인을 다섯 개의 분야로 나누어 단계별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린i-Net의 메시지 방향성

첫째, 청소년 유해정보 자율등급표시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유해정도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입니다.

둘째, 그린i-Net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의 보급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유해정보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차단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것입니다.

셋째, 필터링 S/W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시간 관리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것입니다. 학부모와 자녀들이 필터링 S/W의 시간제한 설정 기능을 활용, 컴퓨터 이용시간을 조절함으로써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넷째,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를 예방하는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법적 제도와 개념들을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다섯째, 청소년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제 활용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TV 프로그램에 표시된 연령등급을 활용하여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TV 시청을 지도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국한해서 운영해온 그린i 캠페인 패밀리 자원봉사단을 지역사무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린i 캠페인 추진내용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

Book in Book 자녀지도 Tip

*** 부모가 가장 궁금해 하는 5가지

Q1. 우리 아이가 인터넷에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자신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자녀 스스로 '내가 너무 많이 인터넷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구나' 를 깨닫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부모님은 인터넷 사용 시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를 자녀와 합의하고 실천에 따른 보상과 실천하지 않을 시 적절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처음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절할 때 알람시계를 활용하여 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인터넷 사용 일지를 기록하게 하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가 컴퓨터 이외에 스포츠와 같은 취미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Q2.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식당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아들 혼자 집에 있는데요. 케이블에서 방영하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야단을 쳐 봤지만 별 효과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송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TV 시청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케이블 등의 유선방송을 통해 표현 수위가 높은 영화나 뮤직비디오 등이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19세이상 시청가' 의 방송프로그램을 봤다고 해서 이를 처음부터 혼내고 강압적으로 못 보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무작정 금지하면 할수록 자녀는 부모님 눈을 피해서 몰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대화를 통해 자녀가 왜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는지, 보고 난 후에는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19세이상 시청가' 의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왜 이롭지 않은지에 대해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과 같이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자녀 스스로가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아이는 요즘 들어 방문을 잠그고 컴퓨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요?

A 성적 호기심을 갖는 것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인터넷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호기심 때문에 계속 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음란물을 보고 있다면 무조건 혼내는 것보다는 음란물을 본 경험과 느낌 등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은 열린 마음으로 자녀가 솔직하게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와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왜 나쁜 것인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합의하여 컴퓨터를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옮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4. 얼마 전 우리 아이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누군가가 자신을 욕하고 험담하는 글을 올렸다며 울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서도 아이가 계속 우울해하고 있어 속상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공간이므로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글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러한 글로 인해 피해학생이 친구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왕따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이버명예훼손과 사이버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를 만든 후,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선생님 등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글쓴이의 아이디를 정지시켜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학교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로 신고 접수된 사건이 심의를 거쳐 명예훼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Q5. 최근 컴퓨터를 많이 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VDT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VDT증후군이 무엇인가요?

A VDT증후군이란 'Video Display Terminal Syndrom' 의 약자로, 컴퓨터 단말기를 장시간 사용하여 신체상에 이상이 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유해 전자파로 인한 각종 질환이 이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는 것은 TV 앞에 바싹 다가가 화면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신경의 피로와 긴장을 일으킵니다. 초기에는 눈의 피로, 충혈, 근시 등과 목, 어깨, 팔꿈치의 저림, 요통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심할 경우 우울증이나 수면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을 겪기도 합니다. VDT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컴퓨터 작업을 피하고, 한 시간에 십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손체조를 하거나 손목패드, 화면보호기 등의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Book in Book 자녀지도 Tip

*** 자녀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지도 지침 10계명

1.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자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부모도 컴퓨터에 대해 알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컴퓨터는 가급적 자녀의 방에 두지 말고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둔다.
4. 부모는 자녀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을 격려하고 칭찬한다.
5. 자녀가 여가시간에 인터넷 사용 이외의 다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6.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자녀가 식사나 군것질을 하지 않도록 한다.
7. 부모는 인터넷 사용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8. 자녀 스스로 인터넷 사용시간 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9. 부모는 자녀의 평소 생각이나 고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자주 대화를 나누도록 한다.
10. 자녀가 인터넷 사용으로 생활 부적응이나 부모와 갈등이 지속되는 중독 현상을 보인다면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출처: 정보통신윤리교육연구회(http://moral.busanedu.net)

*** 자녀를 위한 올바른 TV 시청 방법 7가지

1.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제를 활용하여 온가족이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정하고 그 시간에 TV를 시청한다.
2. 부모는 자녀가 혼자 TV를 시청하도록 두지 말고 가능한 자녀와 함께 시청한다.
3. 자녀와 함께 TV를 시청하지 못할 경우에도 부모는 자녀가 무슨 방송프로그램을 보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부모는 자녀가 시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등급이 자녀의 연령에 맞는지 확인한다.
5. 자녀로 하여금 TV를 시청하면서 느낀 점을 글로 작성해보도록 하거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부모와 함께 토론을 하는 것도 좋다.
6. 자녀와 함께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자녀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비평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7. 부모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를 미리 숙지하여 19세 미만의 자녀가 TV를 시청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란?

어린이 및 청소년의 TV 시청 보호를 위해 '19세 이상시청가' 프로그램의 방송이 금지되는 시간대를 말합니다. 2010년 10월부터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다음과 같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행	평일 · 토요일	13:00~22:00
	공휴일 · 방학기간	10:00~22:00
2010.10.1 이후	평일	13:00~22:00
	토요일 · 공휴일 · 방학기간	07:00~22:00

자녀들의 올바른 TV 시청과 안전한 인터넷 사용

등급서비스로 지도하세요!

막말이 쏟아지는 방송 프로그램과 음란한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자녀가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좋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TV 화면에 표시되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이 자녀의 연령에 맞는지 확인합니다.(7,12,15,19)
자녀가 혼자 TV를 보게 하지 말고, 부모님은 자녀가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가능한 한 함께 시청하도록 합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청소년인터넷안전망 '그린-Net' 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주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린-Net 홈페이지(**www.greeninet.or.kr**) 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